



해외 동향

□ 베트남, 미국 항공기 등 23조원 '통 큰' 구매

-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문(2.27.)에 맞춰 베트남 저가항공사들, 보잉 항공기 110대 구매(17조 5000억원 규모) 계약 체결
 - * 비엣젯(14조 2천억 계약), 뱀부에어웨이스(2조 3천억 계약)
- 비엣젯은 제너럴일렉트릭(GE)와 5조 9천억 원의 제트엔진 판매 계약도 체결
- 베트남이 미국산 제품을 대거 구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불만 달래기 용이라는 해석
 - * 지난해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348억 달러 흑자를 기록

□ 싱가포르 국방부, 미 F-35전투기 4대 우선 조달...8대는 추가발주 옵션

- 싱가포르는 10년 이내에 퇴역 예정인 현행 F-16 전투기의 후계기종으로 록히드 마틴의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'F-35'를 선정
 - * F-35전투기 1대 가격 : 1억 달러(1,100억 원)
- F-35의 조달에는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, 이미 행정부의 지지 얻음
- 우선 F-35 전투기 4대를 조달하고 8대는 추가발주 옵션

□ 보잉(Boeing), 2020년에 무인 전투기 띄운다

-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, 호주 국방부와 함께 개발해 온 무인전투기 '에어파워티밍 시스템(ATS)' 공개
- ATS (길이 11.7m, 항속거리 3,700km), 보잉이 미국 외의 국가에서 개발한 최초의 무인 항공기로 감시 및 정찰임무, 전자전 지원
- 보잉은 조종사가 없는 항공 시스템과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에 집중 투자 하고 있음.



국내 동향

□ 플라이강원 등 3곳 항공면허...저비용항공 6곳→9곳 체제

- 국토교통부는 5일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, 에어로케이 등 3개사에 대해 신규 국제항공운송면허를 발급
- 신규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들은 2022년까지 여객기 22대 도입 예정
-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제주항공, 진에어, 에어부산, 에어서울, 이스타항공, 티웨이항공 등 기존 6개에서 **9개로 확대**

▶ 신규 면허 취득 항공사

항공사명	거점공항	도입 여객기(~'2022)	비고
플라이강원	양양공항	B737 여객기 (9대)	- 면허 발급받은 3개사는 향후 1년 내 정부에서 운항증명(AOC·안전면허)을 신청하고, - 2년 내 취항(노선 허가) 해야 하며, - 거점 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 해야 함 * 위반 시 면허 취소
에어프레미아	인천공항	B787 여객기 (7대)	
에어로케이	청주공항	A320급 여객기 (6대)	

□ 국토부, 보유운수권 국적항공사에 배분

- 아시아나항공, 30년 동안 대한항공이 독점하던 **인천-울란바타르** 노선의 운수권(주 3회)을 배분 받음.
- 또한, **부산-울란바타르** 간의 운수권(주 1회)은 에어부산에 배분, 경남 지역주민의 몽골 여행길 확대
- 김해공항의 첫 중장거리 노선인 **부산-창이** 노선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에 배분되어 향후 지방공항의 취항노선 확대에 선례를 남김

▶ 경합노선별 운수권 배분 결과

노 선	배분 항공사
인천-울란바타르(몽골)	이스타항공(주3회)
한국-마닐라(필리핀)	에어부산(주 950석) 대한항공(주 178석)
한국-우즈베키스탄	대한항공(주1회) 아시아나항공(주1회)
부산-창이(싱가포르)	이스타항공(주7회 규모) 제주항공(주7회 규모)



관내 동향

□ KAI 우주센터 착공식 개최

- 3. 4.(월) KAI와 우리시는 용당리 일원에 'KAI 우주센터 부지조성 착공식'을 가짐
- 올 8월까지 우주센터 터 조성사업 완료, 센터는 내년 6월쯤 준공 예정
- KAI 우주센터는 550명 규모의 연구개발 사무동과 실용급 위성 6기를 동시에 조립할 수 있는 조립장 등을 갖출 예정

□ 한국항공서비스(KAEMS), 초도 정비 현황

- KAEMS, 2. 21.(목) 민간항공기 초도 정비 입고행사(제주항공의 B737 여객기)를 갖고 본격적인 민간항공기 정비사업에 착수.
- 현재 제주항공, 이스타항공과 정비 계약, 다른 저비용항공사들 접촉 중
 - ┌ 제주항공의 B737 여객기를 12일간 성공적으로 정비하고 출고(3.4.)
 - └ 이스타항공 B737-800 기종도 초도정비를 위한 입고 예정 (3.19.)
- 해외에만 의존해 오던 항공기 정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착수한 데 의의
 - *2017년 한 해 항공기 정비를 위한 해외외주 비용 1조1733억 원.
- KAEMS, 올 해 90억 원 수주를 목표,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 기업공개(IPO), 2030년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제시함.

□ (주)에어로매스터, 미국 BAUER와 MRO 관련 협약 체결

- 사남면 소재 (주)에어로매스터(대표 서정배)가 미국 지상지원장비 및 MRO 시설 전문업체인 미국 BAUER社와 협약 체결
 - * (주)에어로매스터 : 2001년 설립된 항공전자 및 소프트웨어전문기업. 데이터 전송 및 기록 시스템, 항공전자 품목 등을 생산.
- 이번 협약은 사천시와 경남테크노파크의 관내 기업 해외 시장개척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지자체, 지원기관, 기업의 모범적인 협업 사례로 평가
-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지역의 MRO 사업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작성일	2019. 3. 11.(월)	보고일	2019. 3. 11.(월)
부서명	우주항공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박예지 (055-831-3470)